

“미완의 돌부처에 담긴 민초들의 염원 표현하고 싶었죠”

65년 화업 김준호 ‘돌부처 드로잉’ 전...20~26일 갤러리 관선재 화순 운주사 돌부처·소나무 등 50여 점 화폭에...먹그림 첫 도전



김준호 화백이 20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 관선재에서 전시를 연다.

예술이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 나이에도 달하면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가에게는 정년이 없다. 물론 스스로가 정한 '기한'은 있을 수 있다. 예술가가 예술가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현역을 꿈꾸며 창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소설가는 죽는 날까지 작품을 쓸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배우는 무대에서 눈을 감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한다. 또 어떤 화가는 붓을 들 수 있는 한 캔버스를 자신만의 색으로 채우고 싶다고 염원하기도 한다.

우리 나이로 여든 여섯인 김준호 화백. 올해로 화업 65년째인 김 화백은 여전히 붓을 들고 있다. 원로화가 아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이며 흐트러짐이 없다. 예술에 대한 열정, 절기가 있었기에 '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김 화백이 20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돌부처 드로잉전'을 연다. (개막식 20일 오후 2시) 23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는 돌부처 30여점과 소나무 20여점 등 모두 50여 점이 출품됐다.

최근 전시를 앞두고 김 화백을 만났다. 그동안의 예술 인생, 개인전을 열기까지의 과정 등을 들었다.

전시에서는 운주사의 '못생긴' 돌부처들이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 왜 원로작가는 주목받지 못하는 돌부처들을 주목한 것일까.

“잘 다듬어진 탁월한 조각 작품보다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돌부처에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잘 생긴 것, 잘 나가거나, 잘 만들어진 조형물에 환호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소박한 것의 이면에는 진정성이 깃들여 있지요. 꾸미지 않는 날 것이 주는 감동, 감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서 추구하는 예술 세계가 어떠한지 다소 가능성이 되었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상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일견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물이 의미있는 작업에 쓰임 받는다는 뜻이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 화백의 고향은 나주 반남면이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광주와 전남에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 신앙을 받아들였다. 목포와 나주, 장흥 등지로 선교를 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김 화백은 “이번 돌부처를 모티브로 하는 전시는 종교적 이념이나 접근이 아닌 민초들의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오랜 세월 풍우에 꺾이고 닳아진 부분 등을 표현할 때의 감회가 다르다”고 전했다.

그동안 작가는 남도 풍광을 모티브로 한 사실주의 서양화를 선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먹그림에 도전했다. 물론 김 작가는 연필 모양의 콩테나 붓펜으로 드로잉을 연마해왔다.

많고 많은 소재들 가운데 운주사 돌부처를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화순 운주사를 찾곤 했습니다. 사찰의 많은 돌부처를 보다 화폭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앞에 앉아 연필이랑 콩테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죠. 사진을 찍어

작업실에서 그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구요.”

그는 젊은 시절 대장암에 걸려 큰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한 시기였다. 무등산 현장 답사를 비롯해 한라산 종주도 했다. 당시에는 방사선 치료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기에 시간이 가면 그렇게 산을 찾아 품에 안겼다.

“산을 가장 많이 찾아 사색을 한 화가가 아닐까”라는 말에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다. 김 작가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화가들 중에는 금강산을 가장 먼저 다녀왔다”고도 했다. “금강산의 수려하면서도 기묘한 만물상을 그리기 위해 사전에 월출산에 올라 현장 사색을 했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엄정한 철칙이 있다는 것을 함의했다.

유화 작업으로 출발해 드로잉 전시회를 갖기까지는 그런 숨은 노력이 있었다. 젊은 시절 교직에 몸담았던 적도 있었다.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지만 그림에 전력하기 위해 교단을 떠났다.

그러나 예술은 오롯이 ‘행’으로 전이되지 않았다. 저간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화백의 작품에서는 한국적 서정, 민중적 정한이 느껴진다. 우리 민초들이 지난 질박하면서도 간절한 염원은 기독교 철학의 토대 위에 불교적 관점 등을 두루 공부했던 작가의 예술적 열정과 맞물려 울림을 준다.

한편 지형원 문화통 발행인은 “평생을 한국적 정한에 천착해온 김준호 선생은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운주사를 찾아 돌부처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눴고 그것을 화폭에 담았다”며 “담묵으로 그려낸 돌부처와 석탑은 이웃길 아재처럼 포근함과 정감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서 ‘특별한 여름나기’

‘... 배롱나무를 담다’ ‘풍류 즐기고...’ 이벤트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여름나기' 이벤트의 일환으로 배롱나무를 담다.

‘박물관의 여름 배롱나무를 담다’, ‘풍류 즐기고 선물 받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무더운 여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시도 관람하고 소중한 추억도 즐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박물관의 여름, 배롱나무를 담다’와 ‘풍류 즐기고 선물 받자’로 진행된다.

먼저 ‘박물관의 여름, 배롱나무를 담다’ (1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박물관 야외정원의 배롱나무의 아름답고도 화사한 모습을 촬영하는 이벤트다.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 사진 또는 릴스로 담아 박물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 지정된 해시태그 (#국립광주박물관 #배롱나무)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전시 안내데스크에서 게시물 인증 후 기념품인 연필세트를 지급할 예정

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5만원권)을 증정한다. (당선작은 9월 13일 개별통지 및 SNS공개)

두 번째 이벤트 ‘풍류 즐기고 선물 받자’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현재 열리고 있는 특별전 ‘도자기, 풍류를 품다’를 관람하고 박물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 관람 인증샷을 지정된 해시태그(#국립광주박물관 #도자기 #풍류를 품다)와 함께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박물관 굿즈를 증정한다. (당선작은 9월 25일에 개별통지 및 SNS(사회관계망)에 공개)

이처럼 박물관장은 “이번 두 이벤트는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더위에 휴식과 같은 힐링을 선사하고자 마련했다”며 “박물관에 들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자기 관련 특별전도 보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무안·영암·장흥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의 신명

9월11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12일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10월5일 장흥문화예술회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전통 풍류의 향연. 전통공연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순회공연 ‘2024 전국풍류자랑’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펼친다. 지역에서는 전남 무안, 영암, 장흥 등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개 단체와 전년도 우수작품을 선정된 6개 단체,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펼치는 4개 지역보존회가 참여해 총 21개의 전통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1일(오후 7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와 12일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소속대로 읊유시인’이라는 주제로 우리음악집단 소속이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이들은 동서양 악기와 가곡,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자신들만의 성악 레퍼토리를 펼쳐 보일 계획이다.



우리음악집단 '소속'.

〈전통공연진흥재단 제공〉

국악단 ‘소속’은 전통의 본질 안에서 현대적 감각을 발산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구 기반 전통예술단체다.

이어 풍광대놀이예술단은 ‘도리를 찾아서, 열씨구!’를 10월 5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 각 지역별 민요의 토리(지방마다 구별되는 노래의 방식)를 찾아 떠나는 테마에 가·무·악·연회를 결합한

종합극이다.

김삼진 이사장은 “2024 전국풍류자랑”을 통해 전통 공연예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지역 기반의 전통공연예술 단체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레퍼토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석준 시인, 제6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 선정

광주 출신 박석준(사진) 시인이 제6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이며 상금 2000만원.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올해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박석준 시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시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의 파산, 대학교 1학년 당시 남민전 사건에 관련된 형들의 수감, 1989년 전교조 결성 이유로 해직을 당하는 등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시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구었다.

심사위원회는 “박석준에게 ‘시’는 ‘삶의 현장’과 동의어이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세계는 수식되지 않은 직설로 가득하다”며 “음울한 세계를 담은 음울한 가락, 한껏 늘어져 있는 이 거친 어조들을 밀고 가는 정직한 슬픔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감옥 속에서



사는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절망의 힘이니, 시가 가진 책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박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병상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가슴속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이 흐르는 기분이 가득했다”며 “막대한 생을 포함해 나를 뒷바라지한 이들과 문화적 지향을 굳게 해주신,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문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시인은 지난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꽃나무가 주는 자각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더 깊은 마음을 쏟겠다”며 “세상살이, 사람살이에서 섬세하고 신중하게 살아가겠다”며 시집 발간 계기를 말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SAC, 9월까지 디지털스테이지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민속 무용’을 간직한 나라들이다. 이들 아시아 국가의 춤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는 상영회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과 예술의전당(SAC)이 오는 9월 30일까지 SAC 공연영상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에서 아시아 춤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4~6일 ACC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스크린댄스’에 앞선 사전 행사다.

지난해 ACC 디지털 스테이지에서 사랑받은 6개국 6편의 ‘아시아 스크린 댄스’ 특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발레인 ‘날기’를 비롯해 미얀마 ‘전통 민속춤’, 스리랑카 건국 설화를 담은 ‘비자야왕자의 도약’, 인도네시아 현대무용 ‘새로운 삶’ 등을 볼 수 있다.

이외 캄보디아 전통춤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작품 ‘쌀’, 말레이시아 궁정무용인 ‘가들란 댄스’와 현대무용 ‘코퍼스’ 등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가들란 댄스'.

〈ACC 제공〉

한편 ‘디지털 스테이지’는 SAC가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공연영상 전문 플랫폼이다. 세계적 연주자인 조성진, 임원찬의 공연 실황을 중계하는 한편 낭만발레 ‘지젤’, 연극 ‘오셀로’ 등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C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 각국의 유구한 가치를 품고 있는 전통춤을 온라인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의미 깊다”며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춤에 깃들여 있는 음악과 무용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